

어촌어항 어촌으로로의 초대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28일 첫발

도시민 대상, 조개잡이 등 어촌체험 기회 제공



도시민들에게 어촌·어항을 체험토록 하여 아름다운 어촌·어항을 친숙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어항협회는 도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다양한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탁받아 그 첫행사로 오는 28~29일 1박2일간 충남 태안일대 어촌·어항·어장에서 실시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가 실시되는 이 행사는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지난 5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기사4면>

이 행사는 어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어촌을 대상으로 갯벌(조개잡이)체험, 독특한 어구·어법의 고기잡이체험, 유람선 승선, 해양박물관 견학 및 인근 문화유적지 탐방 등 섬과 바다, 어촌과 어항을 매개로 다양한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 이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번 첫 행사의 주요일정을 보면 첫째날은 서울 보라매 공원을 출발 충남 당진의 함상공원, 태안의 마애삼존불을 견학하고 남면 진산어촌계 소재 갯벌체험장에서 조개잡이 체험한다. 저녁에는 조개구이 체험 및 특산물 시식회를 연다. 둘째날은 안면도 자연 휴양림을 거쳐 꽃지 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해안을 구경하고 안흥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태안 일대 어촌과 섬 등지를 유람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행사추진을 위해 올해 소요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5월 충남 대천에서 ‘제9회 바다의 날 행사’ 시 일반인(가족단위)과 소년·소녀가장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행사는 9월 18일에서 19일에 2차, 10월 9일에서 10일에 3차, 10월 16일에서 17일 4차행사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시민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산, 각종 교통망 확충 등으로 점증하는 관광수요를 특성화된 어촌관광으로 흡수해 새로운 어가소득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이 가족단위로 어촌과 바다를 즐기며 휴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광어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어촌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어항협회는 계획수립, 등록사이트 개설, 참가자 모집, 현지답사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